

01

한국오리협회 경북지회 자체 설립 결의...도재환 지회장 선출

한국오리협회 영남지회로 통합·운영되던 경북과 경남이 분리돼 각각 출범했다. 기존 한국오리협회 영남지회장으로 활동을 하던 문상권 지회장은 6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경남지회로 출범하기로 의결하고 경남지회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7월 24일 경북도청에서 경북지역 오리농가 10명이 창립총회를 개최, 경북지회장으로 도재환 씨가 새로이 선출됐다. 경북도지회는 차기 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02

농업회사법인 (주)다솔, 협회사무실 공사비용 협찬



최근 한국오리협회는 사무실 구조를 새롭게 개편했으며, 농업회사법인 (주)다솔에서 공사비용을 협찬했다.

03

오리자조금, SNS통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이벤트 기간

2018.8.13~8.19

2018.8.6~8.12

2018.7.30~8.5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는 말복 보양식 인증샷 이벤트·폭염극복을 부탁해~·무더위를 싸악~ 날려줄 이벤트! 등 SNS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팔로잉·댓글로 참여했고, 추첨 후 당첨자들에게 오리고기 선물세트를 증정하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04

한국오리협회, 오리고기 잔류물질 검사



한국오리협회에서는 지난 7월 8개 계열업체의 오리고기 시료의 잔류물질 자체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농약성분 84개, 항생물질 324개 모두 불검출됐다.

05

한국오리협회 강진군지부, 오리고기 소비촉진홍보 행사



한국오리협회 강진군지부에서는 복날을 맞아 7월 28일부터 7일간 강진 청차박물관에서 열린 강진청차축제에 참가해 오리고기 무료 시식회 등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방문객들에게 오리고기의 맛과 효능을 직접 알리며 오리고기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한국오리협회는 회원들의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대응 및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리산업 영위에 있어서 고충사항 또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협회는 해결방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실무검토를 거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 가능 -